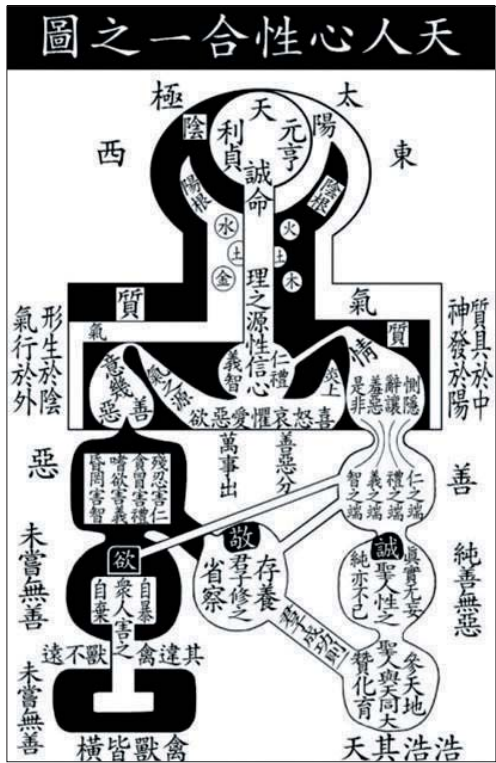


문충공 권근 학문 재조명 학술발표회 개최

양촌 권근 선생 천상분야열차지도 제작의 일등공신, 충주에 ‘권근은하수마을’ 만들어야



천상열차분야지도



천인심성합일지도

문충공 권근 학문 재조명 학술발표회가 10월 24 일 14시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권혁중 문충공 중종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권오협 문충공 중종 회장, 권영 창 대중회 회장, 충주 유림을 대표하여 이찬재 전교, 충주유학회 김복한 회장, 권혁중 총제공 중종 회장, 권태수 문경공 중종 회장, 권오섭 제강공 중종 회장, 권중우 안숙공 중종 회장, 권공범 마현공중회 부회장, 권세한 전 교육장, 최일성 전 교통대 박물관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만 편집국장 등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오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조 태사공은 신라 왕족 김씨였다. 고려 태조 왕건과 견훤이 싸울 때 시조께서 왕건을 도와 병산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다 이에 왕건이 기미에 밝아 권도에 통달했다(炳燭達權) 하여 안동을 본관으로 한 권씨를 사성했다. 그 16대 후손이 양촌 권근 선생이다. 양촌 선생은 17세에 과거에 급제했다. 고려가 기울어질 때 충주에 낙향해 있었다. 조선이 개국되자 태조 이성계의 부름으로 출사하여 대서헌 대제학에 제수되었다. 성리학의 대가로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전견록(五經淺見錄), 동국사략(東國史略), 양촌집(陽村集), 시 98수, 문 315편 등을 남기고 58세에 별세하였다. 오늘날은 잘 알려진 학문적 업적보다 잘 모르는 부분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문충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창 대중회 회장은 추사에서 양촌 권근 선생의 학술재조명 학술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명나라 태조가 내린 시제에 맞춰 양촌 선생이 지은 응제시는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저는 양촌 선생이 쓴 충효제지신(忠孝禮智信)을 늘 보고 배우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한다. 양촌 선생이 저술한 입학도설과 예기전견록 등은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역사상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로 평가 받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이태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양촌 선생을 효봉유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양촌 선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는 안동권문의 큰 자랑이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신 권오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대중회에서는 능동제사에 오면 안동 권씨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성직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양촌 권근 선조의 큰 뜻을 교수님들로부터 듣고 전파하여 안동권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중배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촌 권근 선생의 학문적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충주 발전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문충공은 고려말 조선초의 당대의 학문을 이끈 지성인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큰 교훈이 되고 있다. 학술발표회를 통해 문충공의 지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문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는 “고려말 안동권씨 가문의 효행록에 나타난 효의 윤리관과 보용론”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유서 깊은 안동권씨 가문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드린다. 거론할 필요없이 안동권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이다. 양촌 권근은 입학도설로 유명하고 주자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오경전견록 등 학문적으로 빼어난 저술이 많아 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있다. 효행록은 고려말에 안동권씨 가문이 힘을 모아 쓴 책이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효는 가족 윤리를 넘어 국가를 통치하는 근본이념이었다. 인생관과 세계관을 나타내는 가치였다. 효행 설화가 처음 발간된 것은 고려말 권준(權準, 1280~1352)의 효행록에서 비

롯되었다. 효행록은 역사상 유명한 64명의 효자 설화를 모은 책이다. 효행록의 서문은 국제공 권보의 사위인 익재 이제현이 썼다. 그에 따르면, “국제공(菊齋公 權輔, 1262~1346)의 나이 85세, 길장공(吉昌公 권준)의 나이 66세” 때, 즉 충목왕 2년(1346)에 편찬되었다. 1차본은 권준이 24명의 효자에 관해 간단한 행록을 쓰고 24효자도를 그린 다음 이제현의 찬을 붙여 완성되었다. 권준이 이 책을 아버지 권보에게 봉헌하니, 권보는 1차본에 38명의 효자 이야기를 덧붙이고 이제현의 찬을 더하였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중국 사례이다. 60여년 뒤(1405, 태종5) 권보의 증손 권근이 주해를 붙이고 후서를 쓴 것이 3차본(永樂註解 중간본)이다. 주석이 매우 철학적이다. 효와 충은 실천윤리로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한 것은 양촌 권근부터이다. 안동권씨 가문에 의해 하나의 가학으로 정립되었다. 이것이 일종의 완결본이 되어 조선시대에 내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럼 효행록의 편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효행록의 편찬은 국가가 아닌 안동권씨 가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이든 자식 권준이 아버지 권보에게 효성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현은 서문에서 “생각하면 국제공의 나이 85세요, 길장공도 나이 66세로서 새벽과 밤으로 문안하고 공양하여 그 아버지의 즐거운 마음을 얻었으니 이 역시 노 래자(老萊子)가 나이 70에 색동옷을 입고 어리광 부린 것이나 무엇이 다르리오. 이에 나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여 다시금 권씨의 효행을 위하여 한 장을 찬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책 만들기 어려운 시기에 목각판으로 안동권문의 책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권보가 안동권문을 실질적으로 세운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안동권씨 가문의 정신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적 명문 가문에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 권보와 권준의 가문은 고려말의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다. 권보는 15세에 급제하여 최고 관직인 영도첨의사사사(領都僉議使司事)에 올랐고 봉작은 영가부원공이고 공신호도 받았다. 그는 13년간 정방(政房)을 맡아 인사를 좌우했고 22년간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권준을 포함한 다섯 아들과 세 명의 사위 또한 부원공이었으므로 가족 9명이 부원공이었다. 이에 이제현은 “한 집에 9봉공이 있으니 옛날에는 없었던 일”(一家九封君 古未有焉)이라고 찬탄했다. 권보의 가문은 권력은 물론 막대한 부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효행록 간행은 안동권씨 가문의 부와 권력에 정신적 가치를 더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제현은 이 책의 편찬이 안동권씨 가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안동권씨 가문의 중심 가치 또는 패밀러 아이덴티티를 효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권보는 성리학의 기초인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처음 발간했다. 동방의 성리학이 권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리학이 조선 왕조 5백년간 국가이념이 되었으니 권보의 학문적 기여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권보는 이인로의 은대집(銀臺集)도 주해했다. 이로 볼 때 그의 학문적 능력은 대단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당대 최고의 학문적 가문으로 효행록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기박사는 “양촌 선생의 정치관과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성리학의 맥은 권보에서 사위 이제현으로 이어지고 다시 목은 이색에게 전해져 양촌 권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문도인 천상분야열차지도와 지리지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해 설명하며, 천문도지와 강리도지를 통해 우리는 양촌 선생이 천문과 지리 두 가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전통이 후대로 전승되고 발전되



권오협 회장



김영수 교수

지는 못한 것 같다. 그 후 정교한 세계지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문이라는 것도 계속 나가지 않고 멈추면 퇴보라고 할 수 있다. 양촌 선생처럼 눈을 저 높은 하늘로, 저 먼 해외로 돌려보자. 세계로 우주로 나가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입학도설〉의 하나인 중용을 그림으로 그린 〈천인심성합일지도〉와 대학을 그림으로 그린 〈대학지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양촌은 퇴계 등 여러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퇴계는 양촌은 학술이 연박하여 이 도설을 만드니 극히 증거가 있다 하며 극찬했다. 그러나 퇴계의 〈성학십도〉〈심통성정도〉에 나오는 사단칠정론은 양촌의 〈입학도설〉과 〈천인심성합일지도〉에 나오는 이기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의 대학도는 양촌의 〈대학지도〉를 그대로 옮겨 현 대적인 의미에서는 표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구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권근 전설 고찰”을 발표했다. 그는 양촌은 상소에서 정몽주는 충신이니 표창하고 증직을 내려 절의를 숭상하도록 간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제 권전은 양촌 권근의 아들로서 목은 이색의 아들 이종학과 아버지들에 비해 문장이 부족하고 문명이 따르지 못하니 등하불명계(燈下不朋契)를 만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형 충주구려천문과학관 관장은 천상분야열차지도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중 가장 관직이 높은 권근이 태조의 명을 받아 총 책임을 맡아 제작하고 글을 지었다. 고려말의 마지막 천문대장(당시는 판서윤관사)이었던 류방택(1320~1402)이 계산을 하고 교서감이었던 설경수가 글씨를 썼다. 류방택은 1320년생으로 천상분야열차지도가 제작된 1395년에는 75세의 나이였음을 감안할 때 실제로 별자리 관측을 통한 별자리 수정은 당시 43세였던 권근을 필두로 서윤관의 젊은 학자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의 뜻을 받들어 천상분야열차지도라는 대작을 만들고 그 취지를 기술했던 권근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물을 제작한 일등공신인 권근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라도 권근의 공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일은 후손들이 맡아야할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충주 수물지구에 가면 은하수가 잘 보인다. 그래서 그곳에 ‘권근 은하수마을’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등공신인에서 김복한 선생은 이태형 관장에게 충주를 위해 좋은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은하수마을 조성은 안동권문의 일이기도 하지만 충주시민의 일이기도 하다. 은하수마을을 같이 만들자고 말했다.

권오협 회장은 이상기 박사에게 일본에 강리도가 사찰 2곳과 대학 2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상기 박사는 내년부터 교류가 시작되는데 방문할 기회를 만든다면 강리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에서는 기념타월을, 이태형 관장은 천상분야열차지도 사본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행만 편집국장

안동청년유도회 부호장공파 일원정에서 순회강좌 개최

안동청년유도회(安東靑年儒道會: 회장 김병상)가 주최하는 “제 91회 누대정(樓臺亭)순회강좌”가 안동권씨부호장공파 일원정(一源亭) 정사에서 개최하였다.

10월 26일 오후 3시 청년유도회 측에선 김병상 회장을 비롯하여 강일호 성균관부관장, 유한정 전 경북청년유도회장, 박관우 전 안동청년유도회장, 박시선 안동시의회 의원, 유도회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부호장공파에선 권현중 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하였던 권병균, 권영진, 권주연 세 고문, 권오인 도유사, 권중대 부회장, 임원 6명, 권태욱 사무국장 등 12명이다.

이날 이임태 누대정순회강좌위원장 사회로 임성국 안동일직조등고 교강이 일원정 마루 위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대금으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홀로 아리랑” “아리랑” 등 4곡을 멋있게 연주하였으며 이어 김병상 유도회장과 권현중 회장이 각각 인사말을 하였다.

인사말이 끝나자 순회강좌 발표자인 남재주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이 일원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일원정의 유래는 일원(一源)의 의미는 주자(朱子)의 ‘주자어류’에 의하면 충서(忠愍)를 논함에 서(愍)가 충(忠)에서 분파(分派)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만 가지가 한 근분이 되는 것과 한 근분이 만 가지로 다르게 되는 것이 마치 한 근원의 물이 흘러나가서 만 갈래의 지류가 되고 한 뿌리의 나무가 나서 허다한 지엽이 나오게 되는 것과 같다(萬殊之所以一本 一本之所以萬殊 如一源之水流爲萬派 一根之木生爲許多枝葉)”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정자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집으로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꾸며 놓았다. 정자의 처마 아래에는 당호인 일원정을 비롯하여 왼쪽에는 낙서재(洛西齋), 오른쪽에는 화산재(華山齋) 현판이 각각 걸려있다.

보통 정자는 정면 3칸인데 비해 일원정은 5칸으로 규모가 보통 정자보다 커서 풍류나 강학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죽전 한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미 아주 튼튼하고 잘 지었다 “고 강조했다. 또 내부에는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이 쓴 만수헌(晩修軒),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쓴 백세청풍(百世淸風) 등 9명이 쓴 현판 9개와 시판(詩



板) 9개, 주련(柱聯) 6개 등이 일원정에 걸려있다. 일원정 등 현판 13점은 화재 및 도난 우려가 있어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고 현재 걸려있는 현판은 복제본이다.

일원정은 乙亥年(1935) 국담(菊潭) 태연(台淵)을 비롯하여 우현(禹炫), 중로(重鰲), 중림(重林) 네 분께서 주축이 되어 “친목돈종(親睦敦宗)하는 데는 계(契)만 한 것이 없고 계보하는 파조를 추모하는 파친 간 화합되는 정자 계(亭子 契)만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안동시 대화동 어가곡에 정자를 창건, 일원정이라고 현액(懸額)하였다. 정자는 중수한지 70년이 지나자 퇴락되고 누수 되어 지난 2007년 5월에 중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호장공파 임원들은 남재주 전임연구원이 일원정 정자에 관한 연구 발표로 “지금까지 일원정의 주련, 시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고맙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1987년에 창립한 안동청년유도회는 현재 회원 수만도 130여명이며 지난 2006년부터 경북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매년 4, 6, 8, 10월 등 네 차례 걸쳐서 누대정순회강좌를 하고 있다. 제 88회 강좌는 지난 4월 20일 황만기 박사(안동대 퇴계학 연구소 연구교수)가 서간정사(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673)를, 89회 강좌는 지난 6월 1일 권진호 박사(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장)가 관수루(觀水樓: 경북 의성군 단밀면 도안로835)를, 제 90회 강좌는 8월 24일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강사가 사미정(四未亭: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에 관하여 강좌를 하였다.

부호장공파는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별도로 주문한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근 보도부장

부산종친회 천등회 가을 나들이



한에 거부하는 반공 포로와 송환을 원하는 공산 포로 간 유혈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냉전시대 이념 갈등의 축소판 같았다고 한다. 현재 유적지에는 잔존 건물 잔해만 일부 남아 있으며, 전시품은 당시 포로들의 모습과 생활상, 의복, 무기 등을 비롯하여 전쟁 당시의 사진들을 붙여 놓았다. 근래에 기존 시설을 확장하여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탈바꿈해 전쟁과 역사에 대한 산 교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983년 12월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바 있다.

여기서 본 전쟁 당시 사진과 유적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며 느낀 점은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다. 6.25의 피해는 국군과 유엔군 사망·실종·부상자가 총 772,600여 명이며 북한 인민군도 대략 640,000명이나 된다. 여기에 남북한 민간인 피해자도 300만 명에 육박하니 아비규환의 지옥이 따로 없다. 고한 중학교 뒤편에 남은 옛 PX와 무도장의 벽면 일원과 수용소 관리 부대가 주둔한 막사 잔해가 그 시절을 말해 준다.

귀로에는 해안가 한 주민이 매미 태풍 때 큰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복구하면서 쌓았다는 매미성을 둘러보았다. 규모는 작으나 해변에 쌓은 성벽은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케 하며,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거제는 아직 시골풍이 남아 있고 도시처럼 번잡하지 않아 다시 보아도 좋고 아름답다.

버스에 올라 귀로를 재촉하니 6시 조금 넘어 출발 장소인 종친회관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모여 행사 마무리와 야유회를 주선한 세훈(춘식) 회장과 청암(임호) 총무의 노고에 다 같이 박수를 보냈다.

부산종친회 권재영